

## ‘21세기 사회와 한국 가족’에 대하여

정 혜 정 (전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가족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서 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의 구조와 기능 및 관계의 성격 또한 급격히 변화해 왔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고, 특히 지난해부터 몰아닥친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가운데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 때 한국 가족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또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 이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작업으로 사료되며, 다음의 몇가지 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한국가족의 여러 가지 변화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어떤 가족(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을 바람직한 또는 전형적인 가족으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약화 내지 가족해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가족에 대한 가족학자들의 합의된 정의는 가족정책이나 가정복지 서비스의 방향설정에 매우 중요할 것이므로, 가족의 의미 내지 개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이 연구는 노부모와 부부 및 그 자녀로 구성된 3대가족 (또는 수정확대가족)을 21세기의 바람직한 가족형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가족은 전통적으로 3대가족을 가장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간주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3세대 가구 비율이 1970년대 22.1%에서 1995년 11.5%로 감소하여 왔으며, 3세대 동거에 대한 선호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통계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3대 가족을 바람직한 가족형태로 제시할 수 있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대 가

족을 실제의 가족형태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3대 가족에 대한 이념적 중요성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연구자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성적 불평등과 억압의 문제가 심각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적 가족에서는 성과 연령에 의해 지위와 권력이 정해지므로, 평등 및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추구되는 현대사회에서 더 이상 기능적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실천되지 않는다면 3대가족의 형성과 유지는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연구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실천적 차원에서 3대 가족의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앞으로는 부계3대 가족만을 이상형으로 간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계3대 가족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모계3세대 가족은 “보리쌀 서말이면 처가살이 하지 않는다”는 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전통사회에서 선호되는 가족구조는 전혀 아니었으나, 이제는 모계3세대 가족의 개념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노부모와의 접촉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 성인자녀들이 시가 및 처가와 상호작용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시가와의 접촉은 주로 의례적인 행사와 관련되나 처가와의 접촉은 부인에게 지지적인 성격이 많아 아이돌보거나 경제적, 물질적 도움 또는 정서적인 도움 등을 주고 받는다. 또한 처가살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보편화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관계와는 달리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갈등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3세대 가족에 관한 경험적 연구(정혜정·서병숙, 1998)에 의하면, 부계보다 모계 3대 가족에 속한 성인자녀 부부가 3세대 동거로 인한 대가가 낮고 보상이 높으며, 결혼만족도와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우울감은 더 낮았다. 이 연구는 모계3세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바꾸고, 모계3세대 가족이 부계3세대 가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3대 가족의 형태에 따른 가족경험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가족의 이념으로서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의 조화를 제시하고 있고, 특히 공동체성과 관계성을 위한 가치들은 앞으로 반드시 살려내야 할 가치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전적으로 동감이다. 다만 가족원 한 개인의 희생을 무릅쓰지 않고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대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복지 정책과 아울러 가족은 노인문제·여성문제·청소년 및 아동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여 가족복지 서비스와 함께 노인, 여성,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복지 서비스의 병행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가족은 자녀들에 대한 일차적 사회화의 장이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가족만이 교육의 유일한 장은 아니며 가정, 학교, 사회가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입시위주의 교육 때문에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가정의 불안정성 및 청소년 문제와 연관되고 있다. 21세기에는 가족의 가정교육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앞으로 가정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